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재현



요즘 TV 오락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감동과 휴먼은 기본이고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 기적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케이블TV '사상 임정남 시청률을 올린' '슈퍼스타 K'의 경우, 전국에 노래 잘하는 아마추어 가수 지망생 수만 명을 제치고 '허각'이라는 환풍기 수리공이 최종 1인이 됐다. 이 소식에 시청자들과 네이티즌은 열광했고 평범한 서민도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걸 현실로 보여줬다.

그런데 최근 늦게 귀가해보니 아내가 TV를 보며 울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영문인가 들어 봤더니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에 등장한 악식배달부 김승일씨 이야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유명대학 성악과에 들어간 정도로 밥값의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병간호 등으로 대학을 휴학하고, 10년간 대학 동기들과 연락이 두절된 채 악식배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병석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현재 그의 대학 동기들은 국·공립단체 학장단으로 활성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승일씨가 대학 동기들과 함께 노래하는 모습에 아내는 물론 나 역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며칠 동안 내 머리에는 '악식배달부 김승일'이란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 대신 허각 이란 친구처럼 감동적인 희망의 스토리로만 내 맘에 남은 게 아니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그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야식 배달부 김승일

다른 상처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함께 든 것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악식배달부 김승일'이란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고 있었고, 온 네이티즌들의 환호와 지지의 글이 도배를 하고 있었다.

그 친구는 앞으로 100일 동안 본격적으로 성악공부를 해 조만간 방송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김승일이라는 친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풀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 방송과 시청자들의 순간적인 관심이 사라질 때, 그에게는 뜻하지 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후회

의 속성을 좀 아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직접 만나본 김씨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도 있지만 견강함이 있었다. 그의 꽤 다른 입에선 굳은 의지가 보였고, 그의 눈에선 슬픔을 이겨낸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는 100일의 연습을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TV 화면에 나타나 우리에게 또 한번의 감동을 선물할 것이다. 스타킹의 역할은 사실 거기까지인 것이다.

그런데 우연일까? 나는 현재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김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악식배달부 수원에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100일 후 경기도 문화의전당

에서 '내 생애 첫 번째 공연'이란 제목으로 김씨를 위한 생애 첫 번째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난 그가 과바로티처럼 늦은 나이에 성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엄마를 일찍 여읜 한 청년의 맘에 따뜻한 희망과 용기만이라도 생기길 간절히 바란다. 1시간짜리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감동과 기적이 만들어졌고 그 감동을 전달받았다면 그 안에 틀림없이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면 그것은 감동을 받은자들의 뜻이 아닐까.

김씨는 지금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번 레슨을 받고, 나머지 날에는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연습을 한다. 그를 계속해서 지원해온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미소가 더 많아졌다 한다. 느릿하게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던 그의 얼굴과 말이 아직도 떠오른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휴학 전까지 연습무대도 한번 못 서봤습니다…."

그의 생애 첫 무대가 열리는 날 난 객석에 앉아 있을 것이고, 이사장이 아닌 관객으로서 그의 앞날에 희망과 용기가 함께 하길 기도하며 또 많이 읊을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 눈시울은 붉어진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정동환

올 겨울은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감기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했다.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기를 예방하는데 있고, 특히 영유아 또는 소아의 경우 감기로 인해 만성 비염, 중이염,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는 의학용어로 '비인두암'이라고 하는데, 주로 바이러스 때문에 코와 인두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열이 나는 경우가 많고 콧물이나 기침, 가래 등의

약만 먹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감기와 비슷한 다른 호흡기 질환을 감기로 잘못 알고 있었다거나 감기가 이미 다른 병증으로 번져서 병을 키우는 경우이다. 따라서 만약 감기가 지나치게 자주 걸리거나 너무 오래간다면 다른 질병을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감기의 3대 병증으로서 중이염, 축농증, 모세기관지염이 있고 그의 비염, 폐렴, 뇌막염 등이 있다. 특히 12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소아의 경우 감기로 인해 만성 비염, 중이염,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주

감기의 한방치료

증상과 함께 입맛이 떨어지거나 균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기의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다. 간혹 세균이나 마이코플라즈마 등도 감기를 일으키지만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물속에 침입했다고 모두 감기에 걸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면역체계가 튼튼하다면 바이러스를 한 바지 마셔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러한 면역력을 원기(元氣)라고 한다. 원기는 폐에서 비롯되는데, 폐는 인체의 모든 기를 주관하는 동시에 대자연과 기운을 주고 받는 교환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기와 폐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 면역력과 자가 치유 능력이 향상돼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된다.

감기는 급성 질환으로서 합병증이 없는 한 주일 이상 장기간 계속 앓는 경우 거의 없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감기

의해야 한다. 또한 1년 내내, 혹은 환절기마다 뜯물, 재채기, 기침, 눈 주위의 가려움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감기보다는 '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크다.

감기의 예방법은 아직 만족할 만한 방법이 없다. 감기는 독감과 같이 특정한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주사는 일반적인 감기 예방에 효과가 없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기의 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감기의 원인은 주로 손과 목 접촉에 잘 붙어 있으므로 자주 손을 씻어주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 등을 마시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다.

한방에서는 몸을 차게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찬 기운이 들어와 감기에 걸리다고 하였으므로, 찬 기운을 피하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감기 예방의 지름길이다. 건강할 때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보약을 먹는 것도 보탬이 된다.

감기는 급성 질환으로 합병증이 없는 한 주일 이상 장기간 계속 앓는 경우 거의 없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감기

〈월산원광한방병원 원장〉

기고

조태훈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 부어도 좀처럼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이 지역경제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지자체에서는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 경제 정책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오직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 목표로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전략이다. 아무도 믿지 못할 논리이다. 그러나 결국 생태보전이 곧 돈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순천만 보전이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연간 1000억여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본 것이다.

이는 인근 포스코 공장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에 질문에서 지난 200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1순위였으나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생태환경조성이 지역경제를 제치고 1순위로 뽑힌 것이다. 이는 지역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희망의 문 열다

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유원지로만 여겨왔던 순천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습지 복원과 전신주를 환경 저해시설을 칠거하거나 이설하였고 농업은 친환경 경관농업으로 전환하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먼저 철새가 늘었다.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가 99년에 80마리에 불과하였지만 요즘엔 530여 마리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수도 2002년 10만 명에서 2010년에는 295만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주변 식당은 물론 시내 숙박업소는 사전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순천만 주변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팔리는 한편 갈대거, 갈대차, 순천만 공예품 등 주민

경제가 호전되었기 보다는 생태환경조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13년에 순천만 일대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

정원박람회는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 순천만보전과 도시 팽창을 막아주고 흥수시 도심 침수예방 기능까지 갖추게 되며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 품격을 높이고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어 녹색성장의 탑 모델 도시가 될 것이다.

이제 순천시민들은 2013년에 행복을 보장받았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부부터 기초질서를 가지고 자가용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상호 소통과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곧 품격을 갖춘 선진도시가 될 것이다.

〈순천시 기획감사과 기획담당〉

차량 연비 개선 연료 절감기 효과 없어

차량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연료 절감기의 유통에 장착하게 됐다.

하지만 연료 절감 효과를 걸고 알고 계기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연료 절감 효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

애초 제품의 선전문구에는 시동을 거는 순간, 정격 전압 공급, 엔진 출력 강화, 각종 전자장치 향상과 함께 연비 향상이 시작된다며 거창하게 설명을 해놨다. 제품을 설치하기만 하면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고 정격 전압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 연비가 무려 12%나 좋아진다고 돼있었다. 하지만 기

능개선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런 제품이 일반 기기와 차량에서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나오는 전자 제어식 기기와 차량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한 시

사람에서는 미국의 경우 연비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료 절감기는 팔지 않고 도리어 연료 절감기가 자동차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과장된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속이는 상황 위가 사라졌으면 한다.

▲이재령·광주시 북구 생용동

시설

MB 정부 3년, 거꾸로 가는 지역균형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됐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 보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심경은 한마디로 허탈감 뿐이다. MB 정부에서 지역인맥은 절제하게 소외됐고 여기에 향토기업의 잇단 몰락, 지역균형발전의 후퇴 등으로 광주·전남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역민의 삶은 더욱 고통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는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도 볼 수 없을 만큼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특정지역 편중인 인사는 호남권 인사의 철저한 배제를 불러와 지역 민심을 분노케 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과 청와대 1급 비서관 이상 165명 가운데 영남출신은 36%(60명)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호남 출신은 겨우 14%(24명)에 불과하다. 특히 100대 요직의 경우 영남은 41명인데 비해 호남은 12명 뿐으로 영·호남 차이는 3배가 넘는다. 경찰·경찰·국정원·국세청 등 소위 4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경찰총장을 제외하

고 영남 일색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영남 인맥이 장악하고 있다. 85개 기관의 수장은 영남 출신이 44%(36명), 호남 출신은 12%(9명)다. 정부 직속과 기관 인사에서 '영남 우대, 호남 후퇴' 현상이 극명하다.

5+2 광역경제권 계획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또한 MB 정부 들어 건설, 조선 등 지역 간판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역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오죽하면 '호남기업 죽이기' 아니라 불מנ소리까지 나오겠는가.

특정지역 편중 및 배제 인사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후퇴는 국가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MB 정권의 남은 2년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균형'을 통한 국민화합과 통합이 꿰어야 할 것이다.

도를 넘어선 섬지역 교사들 '복무기강 해이'

전남 섬지역 일부 교사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분교장을 맡고 있는 일부 교사들이 무단 결근이나 조퇴를 일삼는가 하면 학교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유용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섬지역 중학교 분교장인 A교사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한 총 311일의 근무일 중 무단결근 9일, 무단조퇴 7회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분교장 B교사는 교육지원청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3일간 출장 허가를 받은 뒤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 8일, 무단조퇴 9회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C교장은 지난해 6월 지역주민들이 분교장 교사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교사들의 근무에 문제가 없다'며 A, B 교사의 무단결근을 두둔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다.

전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교장, 행정공무원을 엄히 문책하고, 섬지역 학교에 대한 복무기강 차원의 감사가 대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능 강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동큰 치킨'과 '동큰 넷북'으로 소비자들에게 원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롯데 마트가 세번째 시리즈로 '동큰 LED TV'를 내놓았다. 롯데마트는 23일부터 24인치 '동큰 LED TV'를 기준 제품보다 20~30% 싸게 판매해 대박을 러블렸다. 서울역 등 89개 점포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입점 첫 물량인 3000대가 모두 매진됐